

農民은 技術集約의 실천자

□ □ □ □ □ □
농업은 종합과학이다

농업은 종합과학이며 가장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다. 동시에 농업은 국민들의 生命産業이며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기술자인 동시에 경영자이자 실천자인 것이다.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 전 무 정 장 섭

풍년을 기원하는 권농일

6월6일은 권농일(勸農日)이다.

우리나라에는 공휴일로 쉬는 경축일이 연중 13일이 있고 여러 기념일이 27일이나 지정되어 있다. 농경문

화(農耕文化)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 많은 경축기념일 가운데 농사와 관련이 있는 날은 권농일 하루 뿐이다.

권농일은 농본국가(農本國家)로서 농사를 권장하고 농민들의 노고(勞苦)를 되새기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이 날은 모내기를 하면서 풍년을 축원하는 행사가 연례적으로 베풀어지고 있다. 이조 시대(李朝時代)에도 권농일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날은 임금의 손수 소에 맨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며 사적단에 제사를 드리고, 한편 왕비는 비원안에서 누에에게 뽕잎을 주었다고 한다.

불과 20년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업의 주종(主宗)이 농업이었고, 농민이 총인구의 70%를 차지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에 실감이 갔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공업화에 밀려서 농업이 위축(萎縮)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농촌인구가 30%이하로 줄고 게다가 농촌에 남는 일손은 노령화(老齡化), 부녀화(婦女化)하여 후계자육성이 커다란 정책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농촌의 총각들에게 시집을 처녀가 없어서 장가를 못가는 웃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위축일선에 있는 농업

전체식량의 자급률은 50%로 떨어져 있고 81년도에 도입하는 외국이 600만톤에 22억불의 외화가 소요된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수량과 액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나라는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세계는 이미 자원쟁탈전쟁을 벌이고 있고, 식량의 무기

화라는 말이 귀에 설지않게 들려오고 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 및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必須不可欠)의 자원이 농산물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 유일한 자원은 석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기본적인 통계를 몇 가지만 살펴 보자. 논밭 합해서 220만정보,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1정보미만, 농촌인구 한사람에게 논밭 합해서 600명이 할당된다. 이를 더 실감나게 풀이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에게 논밭을 통틀어서 200평도 못되는 좁은 면적이 나누어진다. 이 손바닥만한 좁은 논밭에서 식량작물은 물론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급자족을 하자면 기술혁신에 의한 증산의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농민 스스로의 영농필요

이처럼 냉엄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농업경시(農業輕視) 풍조를 한탄하기 이전에 농민들 스스로의 영

이조시대 때만해도 士農工商으로 신분을 가려 농민이 양반다음 이었는데 요즘은 서열이 완전히 뒤집여서 商工士農이 된 것 같다.

농(厭農) 사상을 더욱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어떤 농민단체에서 지난해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민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하여 발표한 일이 있었다. 그 일부만 여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에게 농사짓기를 권하겠느냐는 설문에 권유한다는 응답은 불과 3.3%이고 말린다 54.4%, 간여않는다 38.6%로 나타났다.

장남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이라는 물음에 농업은 5.4%이고, 기술자 30%의 응답을 하고있다. 농민들 자신의 의식구조가 이렇게 나타났다으니 농업의 경시풍조는 거론조차 하기가 민망스럽게 되었다.

이조시대때만 해도 사농공사(士農工商)으로 신분을 가려서 농민이 양반 다음 이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이 서열이 완전히 뒤집여서 상공사농(商工士農)이 된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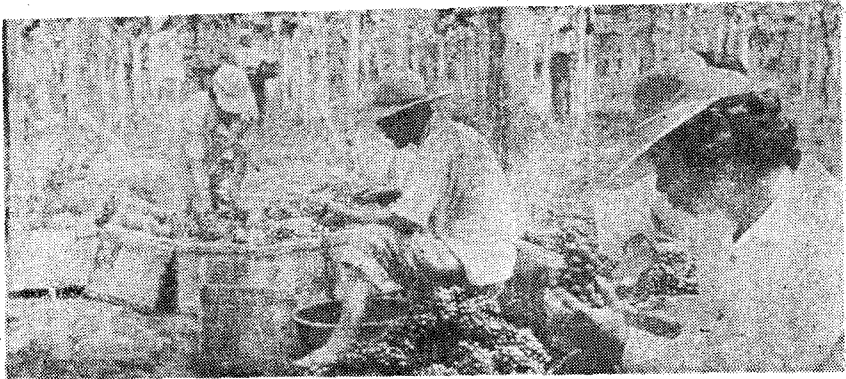
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농고나 농과대학에 보내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런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S대 학교의 금년도 신입생들이 얻은 예비시험성적을 농과대학과 법대나 인기있는 인문계 대학과 비교하며 무려 50점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놀란다. 비단 S대학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성적 하위그룹의 학과에 농대와 축대가 속해 있다.

얼마전의 일이다. 직장을 잃게 된 50대의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야겠어..."라고 한다.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인지, 도시의 실업자들이 갈곳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인지, 알다가도 모를 기막힌 말에 당황하였다.

농업은 분명한 종합과학

흔히들 영화를 「종합예술(綜合藝術)」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농업은 분명히 종합과학(綜合科學)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늘을 쳐다 보고, 씨를 뿌리고, 호미와 팽이만으로 짓든 농사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농업은 유전, 육종, 토양, 미생물, 동물비료, 농약, 기상, 가공, 기계, 토목, 경영, 재배기술등등 여기에 모두 열거할수 없을만큼 많은 최신의 과학기술을 필요로하며 이같은 산업은 달리 또 없을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요즈음 봄무우, 봄배추가 과잉생산되어 운반비도 못되는 실정이다. 주꾸미를 제외하고 가장 소비량이 많은 농산물이 무우와 배추이다. 불과 20년전만 해도 봄철에 저런 결구배추나 무우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도시의 소비자들은 무우, 배추가 어떻게 하여 봄에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편익주의는 농촌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촌 일손을 노령화 및 부녀화시켜 영농후계자 양성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모를 것이다. 우리나라의 채소육종 기술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제철이 아닌때 싱싱한 통배추와 무우로 김장을 담아먹을 수 있게 된것은 육종기술과 포리에칠렌을 비롯한 최신의 시설자재와 농약 및 비료에다 농민들의 과학적인 재배기술이 생산해낸 정화(精華)인 것이다.

엄동설한에 수박과 참외를 먹게 되었고 가을이 아니라도 국화 꽃을 즐길 수 있다. 쌀만 해도 10년전에 10a당 278kg 밖에 소출을 낼수 없었는데 신품종의 육성으로 이제 10년전의 배인 500kg이상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어디 이 뿐이라. 가축의 개량이나 육종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나라의 모종묘회사에서 육종한 봄무우가 일본에 150만불어치나 수출이 되었다

고 한다. 이 봄무우가 품질과 맛이 좋고 장다리(抽苔)가 안나와서 일본의 육종계가 아무리 이런 무우를 육종하려해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의 봄무우종자가 일본농민들에게 대단한 인기여서 이만큼 수출이 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봄무우종자수출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봄무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채소육종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하면 힘들이지 않고 종자만으로도 막대한 외화를 쉽사리 벌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에서 가장 수확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며 재배하기 쉬운 옥수수나 밀의 신품종을 우리가 육종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야겠어...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인지, 도시의 실업자가 갈곳이 없어 마지못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인지 알다가도 모를 기막힌 말이다.

할 수만 있다면 밀과 옥수수종자만 가지고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집약적 생명산업

농업은 종합과학이며, 가장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동시에 농업은 국민들의 생명산업(生命産業)인 것이다.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기술자일 동시에 경영자다.

농사는 기술이나 경영능력만 가지고 안되는 것이 다른 산업과 다른 점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서 언제, 어디서나 반복해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없다. 생명있는 씨알이 땅속에 묻혀서 일정한 자연환경에서 일정기간 자라야 한다. 흙에 대하여 애정과 땀을 쏟아야만 농작물은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농업생산에는 요행이나 기적이 있을 수 없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마련이다. 콩을 심어서 팔이 열리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농민은 없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것이 농사이다.

농산물을 흙에서 재배하지 않고 공장에서 합성을 해내는 기술은 아직 없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공장이야 수지가 맞지 않으면 휴업할 수도 있고, 조업을 단축할 수도 있다. 농민들은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봄이 오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논밭을 일군다.

농업경시 풍조가 언제부터 밀려왔는가를 먼저 더듬어 보자.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공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농업경시 풍조가 일기 시작하였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고달프고, 근로정신이 희박하여 집에 따라서 농업경시 풍조가 심화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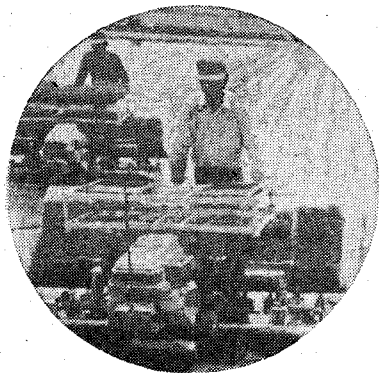
우수한 인재 확보 시급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농가경제를 농기계의 구입능력을 놓고 비교하여 보자. 1년간 농가경제 잉여로 트랙타 한대를 구입하는데 일본은 2년이 걸리는 데 우리나라는 16년이 걸린다. 일본은 경운기 3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3년이 걸린다. 이앙기의 경우는 일본이 석달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2년반이 걸린다. 농가소득이 향상되자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불러 일으킬만큼 먼저 농산물 가격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농업경시 풍조는 매스컴에서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어떤 벽촌에 가도 테레비전 수상기와 라디오가 보급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총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인구를 위해서 몇프로나 농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텔레비전이 아니라디오를 시청하고 있으면 농사지을 의욕이 솟아 나오겠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도시의 붕급생활자는 한사람의 급여로 한집안의 가게를 꾸려 나갈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온집안이 총동원되어 일을 해도 대학생 자녀 한사람의 학자금도 벌수 없다. 74년도에는



우수한 농업기술자가 농사를 맡도록 하기 위하여는 경제, 사회, 문화적 대우가 선결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보다 5%가 많았으나 78년에는 98% 수준으로, 80년에는 85%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한다.

도시 어린이들에게 돈 500원을 주어서 균것질을 시켜보면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과자류나 가공식품, 주스류를 구멍가게에서 사들고 달려 온다. 신선한 과일이 요즘은 어린이들의 기

호식품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가공식품이나 과자류의 원료도 농산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들 기호식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얼마나 원료로 쓰고 있는지? 지금 계란이 안팔려서 양계농가가 도산하고 있다. 계란 한개에 사료값만도 45원인데 농민들이 받는 알값은 35원으로 10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껌한통에 계란 3개 빵 한개에 계란 다섯개, 유산균음료나 아이스크림 한개값이 계란 다섯개 값이다. 사과 두상자를 팔아야 겨우 국산 양주 한병값이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식량수출 지배하면 전세계를 지배한다.」

우리와 일본의 중요한 농산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고 통계를 비교하여 본다. 감자는 1.7배, 고구마 1.5배, 배는 4배, 포도는 1.5배. 복숭아 2배, 무우와 배추는 약 3배, 토마토 4배, 오이는 3배이다. 거의 모든 농산물의 단위 면적당 수확고

「식량문제에 무지한자는 정치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갈파하였다. 또 전 칠레 농무장관은 「식량수출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더더구나 최근에 와서 농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은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 제언 : 농업은 종합과학이다 □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많은 데 놀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기술의 차이라고 볼수 있다. 증산은 기술혁신으로, 기술혁신은 농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식량문제에 무지한 자는 정치가 가 될 자격이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갈파하였다. 그리고 또 전 칠레 농무 장관은 「식량 수출을 지배하는자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였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더더구나 최근에 와서 농업경서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은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우리나라의 농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굳이 농자전하지대본을 고집하려는것도 아니다.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세계 정세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국가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농업 증산에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는다.

농촌은 농업생산의 바탕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숨쉬고 있는 고장이다. 하루만의 권농일이 아니라 365일이 권농일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농사를 사랑하고 농민들의 노고를 올바르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농고나 농과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수 있도록 교육의 혁신이 있어야 하고

국비로 장학할 것을 제언한다. 농업 분야의 기능공양성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농업기술자를 양성하여 농촌에 이들을 정착케 하고 녹색혁명에 앞장 세워야 한다.

농업부문의 시험연구기관에도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서 매우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우수한 농업 기술자가 농사를 맡아야 하고 이들에게 상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대우를 해주는 일이 진정한 권농인 것이다. 농사가 수지맞는 사업이라면 우수한 농촌의 인재들이 무작정 도시로 물러들거나, 다른 산업으로 빨려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농촌에는 지금 모내기, 보리수확으로 연중 가장 바쁜 계절이고 일손이 모자라서 아우성이다. 모자라는 일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의 기계화로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혁신과 경영형태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복지국가가는 도시나 농촌이나 농업이나, 상공업이나, 균형있는 발전으로 가능한 것이다. 일년내내 온 국민에게 농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수 있고 농민들에게 증산의욕을 북돋아줄 항구적인 권농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